

12지 이야기(7)

말 - 역동적인 동물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cgl8509@comcast.net

말 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늘씬한 준마가 갈기를 곧추세우고 달리는 모습을 연상한다. 말을 타고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벽화 '수렵도'는 온갖 어려움을 이기면서 곳곳이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느끼게 한다.

다리 목 얼굴이 길고, 목덜미에서 등까지 갈기가 나 있으며, 꼬리는 긴 털로 덮여있는 말. 어깨높이 1.7미터, 몸의 길이는 2미터에 이른다. '뛰다'라는 낱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을 등에 태우고 채주와 도약을 맛보게 해주는 유일한 동물이다.

개 다음으로 빨리 가축화하여 인류의 교통 군사 문화의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반도에도 구석기 시대부터 존재하면서 신화를 창조하기도 했다. 황제 출현의 징표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신화책 <삼국유사>에는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징표가 나타난다고 적혀있으며, 박혁거세의 천손하강은 하늘로 날아올라간 천마로 예고되

었다. 그리스 신화에도, 영웅 벨레로폰이 불을 뿜는 괴물 키마리아를 죽이는 데에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다닌 천마 페가수스가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천마는 옥황상제가 타고 하늘을 달리는 신성한 동물이었다. 말은 곧 하늘이고 태양이었으며 남성이었다. 혼인할 때 신랑은 백마를 탄다. 민간에서는 무신(武神)이라 생각한 나머지 나무나 쇠로 말의 모형을 만들어 수호신으로 모셨다. 고래로 기마병은 전투를 승전으로 이끈다고 알려졌다.

말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로 이용되었다. 짐을 싣는 수레를 끌었고, 논밭을 가는 데도 사냥에도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공문을 급히 보내려고 곳곳에 역참을 두었다. 역참에는 역말을 갖추어 두고, 먼 곳까지 가려면 갈아타기도 했는데 그때 타는 말을 파발마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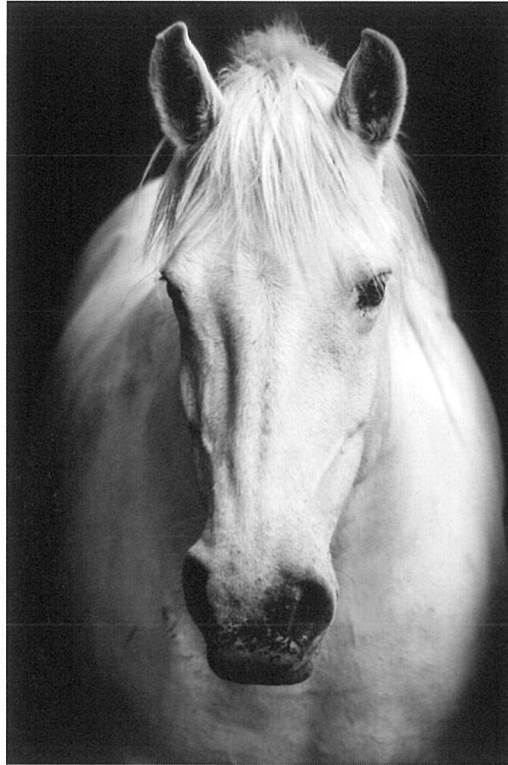
전쟁이 나면 늘 말들이 수난을 당했다. 치열한 전쟁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몽고 제국의 시조 징기스칸은 13세기에 말을 이용하여 아시아의 태반과 동부 유럽을 정복했다.

1815년 워털루 대회전에는 3만 마리의 말이 기병을 태우거나 보급품 또는 대포의 운반에 이용되었다. 그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탄 말 스무 마리가 죽었다는 기록은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가늠하게 해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말은 무려 150만 마리였으며, 그 1/3이 부상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굶어 죽었다.

말은 빠르고 다혈질이다. 말피 사람들은 강직하고 열정적이며, 활동력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다.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남자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여성에게 신사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사랑 받는 운명을 타고난 젠틀맨이 될 수 있다.

여성은 방송계나 예술계 또는 체육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질을 가지며, 운세가 남자에 비하여 더 좋을 수도 있다. 화려한 열정을 품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도 있다. 추진력이 강한 데다가 화끈하고 뒤통이 없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한다.

자동차에 말의 이름이 사용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에쿠우스는 말의 학명 Equus caballus 에서 따온 것이고, 포드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무스탕은 미국의 평원에서 사는 야생마의 이름이다. 그 말은 인디언들이 버팔로를 사냥하는 데 쓰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는 데에 필요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람의 문화를 바꿔놓은 동물이다. 인디언들에게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동물이다.



구두를 신는 유일한 동물이 말이다. 충격을 줄여 발굽을 보호해주는 말의 구두 편자는, 경주마에게는 달릴 때 미끄러움을 방지해주고 속도를 내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화덕의 불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들겨 타원형 편자를 만든 다음, 큰 칼로 가지런하게 깎은 발굽에 쇠뿔으로 고정하는 오래된 직업을 장제사라고 한다. 얼마 전부터 규격품이 나와 얘기가 달라졌지만, 8.15광복 직후에는 한 마리 장제비가 쌀 다섯 가마 값이었으니 별이가 좋았던 때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편자만들기 대회가 열린다. 사람들을 옛날의 한 직업과 연결시켜주려는 목적으로 2007년에 텍사스에서 시작된 이 대회에서는 12분 이내에 쇠덩이를 완벽한 편자로 버려야 한다. 일 대 일로 시합하고, 경합은 치열하며, 해마다 주를 바꿔가며 개최된다. 세워두었다가 시동만 걸면 다시 굴러가는 자동차와는 달리, 먹이고 재우고 손질해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주면서 교통 수단으로 쓰던 말은 수의학학을 낳은 동물이기도 하다.

말은 어느 사이 애완 동물이 되었다. 가까이 두고 다루거나 보며 즐기기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해서 부자들의 동물이다. 올림픽의 마술 경기에 이용되고, 폴로 경기와 여우 사냥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며, 경마장의 주역이다. 영국 왕실의 의식에 빠짐없이 나타나고,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운구를 맡는다. 싸움을 모방한 놀이 기마전에 참가하고, 기마대에서 경찰의 직무 수행을 돕는다.

그밖에도 대규모 목장에서 소떼나 양떼를 몰이하는 데에 사용된다. 십여 년 전 올란바토르에 한 주 동안 머물면서 말을 타고 에델바이스가 피어 있는 테를지 공원을 돌아보고, 게르에서 징기스칸 요리도 먹어보았다. 주식인 말고기를, 구워서 탕으로 회로도 먹고 있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은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다는 뜻으로, 일종의 경고다. 인생의 길흉 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의 새옹지마(塞翁之馬)는 도교의 대표적인 사상이다. 탄도치마(坦道馳馬)는 탄탄대로를 말 타고 달리는 호팔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숨기던 일이나 정체가 부지중에 드러나면 마각(馬脚)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중국 원나라 시대의 희곡에서 말의 다리로 분장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 데서 나온 표현이다. 남의 의견이나 비평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러버리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의 태도는 자신에게도 해롭다. 바둑에서 쓰는 대마불사(大馬不死)는 근거 없는 믿음을 빗대는 말로도 쓰인다. ▽

